

백두대간 종주 제12번째 산행기

(태백산의 눈발을 헤치고)

광전재료과 화공사무관 최월영

■ 구간 설명

경북과 강원도에 걸쳐 있는 도래기재 ~ 화방재(일명 어평재) 구간은 백두대간에서도 최고 오지에 속하는 산줄기다. 특히 이 구간은 구룡산, 신선봉, 깃대배기 등 봉우리가 여럿 솟아 있지만, 천제단이 있는 태백산을 제외하곤 등산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산들이 이어지고 있다.

계다가 능선의 굴곡이 심하고, 방향이 심하게 틀어지는 곳이 많아 독도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헤매기 십상인 구간이다. 마루금에서 민가까지 보통 반 나절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단 종주산행을 시작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끝까지 주파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북서쪽은 군사 통제구역이므로 절대 그쪽 방향으로는 하산하지 않도록 하고 비행기 굉음과 총소리에 놀라 당황하지 말고 마

음 가짐을 든든히 해야한다.

도래기재에서 화방재까지의 산행 거리는 약 23.7km이지만, 보통 박달령-곰넘이재, 곰넘이재-화방재 2구간으로 나누어 산행한다.

<제23회차> 구룡산(1,346m)

- 일시, 소요시간 : 2004. 1. 11(일)
04:40 ~ 13:30(휴간 50분)
- 행정구역 : 경북 봉화, 강원 영월
- 산행구간 : 오전약수-박달령-옥돌봉-
도래기재-구룡산-곰넘이
재-실두동 25km

2004년 1월 10일 올해의 첫 번째 백두대간 산행이 시작된다.

2004년 1월 11일 새벽 3시 어둠을 뚫고 달려온 서울고려관광 버스는 오전약수 주차장에 도달하고 산꾼들은 산행 준비에 추위를 느낄 수가 없다.

4시 40분에 대장님의 출발 명령에 따라 2주전에 내려왔던 박달령을 향하여 잠 들 깬 발걸음을 움직인다. 오전약수에서 박달령까지는 서비스 구간으로 어둠을 헤치고 시설이 덮여있는 작은 계곡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길이다.

☞ 05:40 - 09:18 박달령 - 도래기

오전약수 사거리 안부에서 1시간여 오르면 박달령이 반긴다. 이곳도 고치령같이 지프형 자동차만 올라갈 수 있는 험준한 고개이다. 고개 마루에는 산신각이 있고, 북쪽 아래 100m 거리에 시멘트로 지붕을 덮은 샘터가 있다. 박달령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후발대를 기다리고 하늘을 보면서 오늘의 안전 산행을 산신각 앞에서 고개 숙여 빌어본다. 휴식도 잠시 어둠을 헤치고 다시 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옥돌봉을 향하여 침묵의 행렬이 이어진다. 박달령에서 옥돌봉으로 이어지는 대간길은 매우 잘 닦여 있다. 날씨는 겨울 답지않게 포근한 기분이 들 정도로 산행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이다. 그래도 고도를 높여 갈수록 숨이 차고 땀은 등을 지나 엉덩이로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허덕허덕 1시간여를 능선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니 여명이 밝아오는 옥돌봉

정상에 도착한다. 옥돌봉 정상에는 눈이 발목까지 덮여 있고 먼저온 팀들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옥돌봉 표시석을 옆에 두고 증명사진을 찍고, 후발대를 기다리며 동쪽에서 열리는 아침을 기다린다.

7시 43분 동쪽이 열리고 얽은 구름을 뚫고 나무가지 사이로 둥근해가 나타나며 얼굴을 붉게 물들인다. 산행하면서 맞이하는 아침 해는 장소와 때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밝기도 차이가 있어 매번 신기함과 신선함을 온 몸에 스며들게 한다.

옥돌봉에서 북동으로 휘어져 나가는 백두대간상으로는 구룡산이 보이며, 남쪽으로 문수산이 주실령(朱實嶺·해발 750m)과 함께 시야에 들어온다.

옥돌봉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 중 압권은 남서쪽 조망이다. 멀리 죽령서부터 옥돌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한눈에 들어온다.

도래기재 도착전 위장의 긴급구조신호에 의해 행진을 중단하고 양지바른 곳을 찾아 아침을 준비하니 시계는 8시 26분을 가리킨다. 우선 돼지고기 양념구이로 위장에 신고를 하고 만두라면국으로 배를 채우며 오늘의 대간길 진행에 힘을 얻는다.

아침 식사 후 옥돌봉에서 북동쪽 아래

로 이어지는 두 개의 능선 중 오른쪽 능선길을 따라 쟁걸음으로 도래기재에 도착하니 동대문사단, 운고문 부부, 황제 등이 부산하게 아침을 먹고 있다. 도래기재 고개 다투로 내려설 때 약 40m 높이의 절개지이기 때문에 큰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 북쪽 사면으로 발길을 옮겨 조심스럽게 내려야 한다. 지나는 길에 소주한잔 얻어먹고 장비를 추스려 조심스럽게 절개지를 따라 다음 구간으로 진행한다.

도래기재에는 백두대간 등산로 안내판이 있어 지나가는꾼들에게 앞으로의 행로를 눈으로 헤아리게 해준다

☞ 09:18 - 11:37 도래기재 - 구룡산

도래기재에서 구룡산 방향으로 산불조심 깃봉 5개가 있고, 이 산불조심깃봉 뒤로 난 대간길로 구룡산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는 오르막 길이다.

도래기재에는 일제 때 고개 북서쪽에 위치한 금정광산에서 캐낸 금을 실어 나르기 위해 대간을 뚫어 단든 금정터널이 있다고 하지만 갈길바쁜 관계로 확인을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쉽다. 표지기가 있는 급사면으로 15분 올라서면 도가 나타나고,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5분 정도 가면 철탑을 만난다. 철탑에서 15분쯤 능선길

을 따르면 대간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임도에 닿는다. 임도를 가로질러 오르는 길에는 싸리나무군락이 펼쳐지고, 봉우리 두 개를 오르내리며 진달래나무가 유난히 많은 곳을 지나면, 임도를 떠난 지 35분쯤에 헬기장 두 곳을 만난다. 두번째 헬기장에서 왼쪽길을 따르면 완만한 내리막으로 이어진다. 첫번째 임도에서 1시간쯤 내달려 2번째 임도에 도달하여 숨을 고르고 풀 한번 잡고 목을 축이며 다음 산행을 준비한다. 이제 배낭이 어깨를 짓누르고 피곤을 느끼며 건너편 절개지로 곧장 올라간다.

고도가 1,000m를 넘어면서 하늘은 맑지만 지형의 영향으로 눈발이 날리며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다. 진달래나무가 얼굴을 때리는 급사면을 힘들게 올라 구룡산 남서쪽에 위치한 1,256m봉에 닿는다. 잠시 숨을 고르고 1,256m봉을 우회하여 오른쪽 사면으로 돌아 나아가면 구룡산(1,346m) 서쪽 1km 지점의 안부에 닿는다. 안부에서 동쪽으로 구룡산 정상을 바라보며 오르면 집채만한 바위가 나타나고, 계속 오름길 옆으로 생김새가 비슷한 바위 3개를 보며 15분쯤 걸으면 다시 바위와 고사독이 나타난 다음 헬기장이 있는 구룡산 정상에 닿는다. 구룡산 정상은 나무 한 그루 없어 사방 탁월이 없는 곳

기술표준가족

이다. 동쪽 가까이로 신선봉이 보이고, 그 북동쪽으로 깃대배기봉과 태백산을 지나 함백산까지 길게 뻗어오른 백두대간이 한 눈에 들어온다. 구룡산 표지석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사천왕의 배낭을 털어 저 멀리 태백산을 안주삼아 정상 등정을 기념하는 정상주를 다시며 지금까지의 피곤을 잠시 달래고 이제는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가야 하는 구간을 점검해본다.

☞11:37 - 12:52 - 13:40 구룡산 - 곰넘이재 - 실두동

구룡산 정상에서 발목까지 눈이 쌓인 급사면인 방화선을 따라 내려서면 방화선이 누그러들면서 고직령 삼거리에 내려선다. 고직령삼거리에 수지의 김고문께서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구원을 요청하여 증장천왕이 비상시에 대비하여 가지고 다니는 수지침으로 통증부위를 찔러 기를 통하게 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천천히 산행할 것을 권한다. 수지침은 수지에 계신 분들에게 잘 듣는다고 농담을 하면서 등친 근육이 빨리 풀릴 것이라고 하여본다.

산행 시간 7시간 동안 재와 봉을 넘나들면서 급격하게 기온의 변화로 누구라도 통증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산행은 조심도 중요하지만, 산신령의 보살핌이 따라야 아무 탈없이 산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며, 한 달전의 장판지 근육통으로 고생하였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고직령 삼거리에서 그대로 방화선을 따라 직진하여 밋밋한 1,231m봉을 지나 능선길을 따라 전진하면 흰 바위가 나타나고 왼쪽으로 돌아 나가 움닥터가 있는 곰넘이재에 도착한다. 곰넘이재 도착하니 이구대장님께서 반갑게 맞이하고 등산로 표지판 앞에서 증명사진을 찍고는 서비스 구간인 실두동까지 피곤을 발걸음을 움직인다. 곰넘이재의 등산로 표지판에는 참새골로 표시가 되어 있어 약간은 혼란스럽다. 50분 정도 임도를 따라 내려서니 어제 타고 왔던 고려관광버스가 보이고 먼저은 대원들이 박수로 맞아준다. 오늘의 산행은 여기서 접는다.

<제24회차> 태백산(1,567m)

- 일시, 소요시간 : 2004. 1. 25(일)
04:05 - 13:30(휴간 25분)
- 행정구역 : 강원 영월, 태백
- 산행구간 : 진조동-곰넘이재-신선봉-
깃대배기봉-부소봉-태백
산-화방재 25km

2004년 1월 25일 새벽 3시40분 어제 서울을 출발한 버스는 눈과 얼음 때문에 1월11일 오후에 내려 왔던 실두동까지 올

라가지 못하고 경북 봉화군 춘양면 진조동에서 멈춘다.

현재 기온 영하 20도라고 누군가가 알려준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진눈깨비가 조금은 내리고 있다. 도로에는 발목 정도까지 눈이 쌓여 있어 고도가 높아질수록 눈높이가 높아 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추위와 눈에 대비한 산행채비를 하고 헤드렌턴 불빛에 의지하여 눈덮힌 임도를 수도하는 다음으로 앞서간 사람들의 길을 따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전진한다. 서비스 구간인 진조동에서 곰넘이재를 힘겹게 올라서니 시계는 5시35분을 가리킨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 어둠속으로 능선길을 걷는다. 아까부터 자꾸만 구역질이 나오면서 피곤한 기운이 느껴지고 머리속이 어찝어찝하면서 자꾸만 어지러운 것이 오늘의 산행이 힘들 것임을 예견한다.

☞05:35 - 06:35 곰넘이재 - 신선봉

곰넘이재에 올라서니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그냥 서있기에는 한기가 느껴져 본격적으로 설상 등반을 알리는 방화선을 따라 서서히 고도를 높인다. 이전 눈도 발목을 넘어 무릎 가까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이번 설연휴에 내린 눈들이 얼

어 빙설이 되어 언덕배기를 올라 갈 때면 자꾸만 미끄러지면서 산행 속도가 느려진다. 방화선 자락이 끝나면서 묘 1기가 나타나고 급경사 오르막에 접어든다. 여기서 산죽과 싸리나무가 우거진 숲속길을 헤치며 20분 정도 오르면 신선봉 정상이다.

☞06:35 - 10:25 신선봉 - 깃대배기봉

신선봉을 그냥 지나쳐 눈으로 과묵히 있는 산죽군락이 무성한 급경사를 한동안 내려선 다음 계속 산죽길을 따라 몇개의 봉우리를 지난다. 저 멀리 동녘으로 붉은 기운이 올라 오면서 아침이 오는 기운을 느끼게한다. 7시 30분 산죽군락 속의 빈터에 갈림길이 보이는 삼거리에 닿고 이전 완전히 아침이 밝아 헤드렌턴을 머리에서 제거하고 채비를 다져 피곤과 추위에 얼은 몸을 추스리며 어지러운 정신을 이끌고 다음 구간을 향한다. 머리에 쓴 밤모자의 땀이 얼어 고깔 모자가 되어 버렸다. 기온을 물어 보니 영하 19도라고 대답한다. 대간길에서 만나는 정말 추운 날씨이다. 눈물샘이 얼어 눈까풀이 짹짹 소리를 낸다. 8시 20분 양지바른 곳에 도여 눈을 치우고 아침 밥상을 차려 허기를 달랜다. 입도 열고 손도 얼었지만 잘 열려지

지 앓는 입을 열어 라면 국물로 몸을 풀고 무릎까지 빠지는 대간길을 앞서간 대원을 따라 자꾸만 무거워 지는 몸을 다잡으며 걷는다.

깃대배기봉은 산쪽으로 덮여 있는 넓은 구릉지대이므로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반대로 종주할 경우에는 독도에 신경써야 한다. 깃대배기봉을 지나 태백산을 바라보며 걷는 발걸음이 무거워 지면서 자꾸만 뒤로 쳐진다. 피곤과 갈증으로 쉬는 회수가 많아지고 걸음이 느려지면서 힘들게 산행한다. 고산자회 회장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동행하면서, 멧돼지가 큰병났다고 놀린다.

10:25 - 11:55 - 12:45 깃대배기봉 - 부소봉 - 태백산장군봉

깃대배기봉을 힘들게 지나면 흰 자작나무 군락을 지나 부드러운 길을 따르다가 1,146m봉에서 오른쪽 사면으로 돌아 나가면 처음으로 주목이 나타난다. 저 멀리 부소봉이 눈앞에 다가오고 태백산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린다. 이젠 거의 무의식적으로 걸기 시작한다. 아무 생각없이 다가선 부소봉. 부소봉은 단군의 아들인 부소왕의 이름이다. 주릉을 따르다 헬기장이 나타나면 왼쪽으로 내려선다. 부소봉

사면길은 온통 철쭉과 진달래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 나무들 사이로 태백산을 바라보며 걷다보면 부소봉과 태백산 천계단 사이의 이정표가 있는 곳에 닿는다. 깃대배기봉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문수봉, 백두대간’ 안내판부터는 길이 넓어진다. 태백산의 세 개의 계단 가운데 하나인 하단을 왼쪽에 끼고 경사길을 올라서면 태백산 천계단(1560.6m)이 한눈에 든다. 천계단 하단에 고양이 한 마리가 반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계단을 비껴준다. 1500고지의 고양이를 보니 묘한 기분이 든다. 천계단의 계단을 먹고 살아가는 저 고양이는 누구의 전신인지도 궁금해진다. 천계단에 올라 무사산행을 기원하고 사방을 둘러본다. 지금까지 걸어온 백두대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멀리 구룡산, 소백산까지 방화선을 따라 조망된다. 북쪽으로는 앞으로 가야 할 함백산과 대봉산을 지나 두타산과 청옥산, 고적대로 이어지는 대간이 힘차게 뻗어 있다.

다시 천계단 뒤로 이어지는 300m 거리에 둘레 20m, 높이 2m 가량 되는 계단에 이르러 있는데, 태백산 정상인 장군봉(1566.7m)이다. 이곳은 6월 중순경에 털진달래와 철쭉꽃이 만개하며 태백시산악협의회에서 매년 6월초에 철쭉제를 개최한다고 한다. 실질적인 태백산 정상 장군봉

에서는 천제단과 모양이 비슷한 장군단이 있다.

태백산 표지석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바람과 추위를 피해 하산을 서두른다. 이제 하산 길만 남아 있길래 조금은 안심하며 걸음을 옮긴다.

☞ 12:45 - 13:30 태백산 - 유일사 - 화방재

장군봉 이후는 주독 군락을 지나 계속 내리막이다. 장군봉을 오르기 위해 일반 등산객들이 올라 오면서 하산길이 자꾸만 지체된다. 유일사에서 설치한 인양기가 있는 사거리 안부에는 '유일사 0.15km, 매표소 2.3km, 천제단 1.7km'의 이정표가 서 있다.

일반 등산객들이 다져 놓은 눈길은 이정표에서 끝나고, 눈이 깊은 능선을 따라 계속 직진하면 약 10분 후에 사거리가 나타난다. 잠시 후 바위가 있는 1,174m봉을 지나면 주릉이 서서히 북으로 꺾이고 이어 북사면의 음침한 사면길을 따르게 되고 넓은 터에 산령각이 있는 사길치(새길치)가 나온다. 사길치 산령각은 보부상들이 지어 놓은 것으로, 보부상들이 천평을 지나 고직령을 넘어 춘양으로 다니던 길로, 지금도 음력 4월15일에 제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사길치에서 오른쪽 넓은 길로 10분쯤 내려서면 팔보암으로, 오른쪽 길로 500m쯤 가면 31번 국도가 나오는데, 대간 길은 목장의 철망이 가로막고 있다. 왼쪽 발머리를 지나 숲으로 들어서서 사면을 돌아 나아가면 10분 거리에 31번 국도가 지나가는 화방재(어평재)에 이르고 오늘의 산행은 여기서 마무리한다.

♣ 백두대간가는 길에 만나는 이야기들

☞ 태백산일원의명소

태백산 정상 부근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제단이 있다. 자연석 편마암으로 둘레 27m, 폭 8m, 높이 3m의 원형제단인 천제단은 중요민속자료 제288호로 지정되어 있다. 매년 10월3일 개천절에 천제를 올리는 행사가 이곳에서 열리고, 강원도민 체육대회 성화 채화도 이곳에서 한다. 천제단 북쪽 장군봉에도 이와 비슷한 장군단이 있고, 천제단 남쪽 주릉 아래에도 하제단이 있다. 천제단 부근에는 '살아 천년 죽어 천년(生千死千)'이라는 주독이 4,000여 그루 자생하고 있고, 단종대왕의 혼령을 도신 사당과 천제 때 제수로 사용하는 용정이 있다.

그의 당골 광장에 위치한 태백산 석탄

기술표준가족

박물관, 금대봉 북동쪽에 위치한 남한강의 발원지인 검용소, 화지동 중심가의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못, 산줄기를 뚫고 흐르는 구무소, 화전동의 용연동굴, 혈리굴, 비와야폭포, 미인폭포, 너래폭포, 망경사, 청원사, 백단사, 유일사, 단덕사 등 명소와 사찰이 많이 있다. 태백에서 제일로 치는 것이 많다. 한강, 낙동강, 오십천의 물뿌리가 여기 있고, 높은 추전역, 긴 정암터널, 높은 만항재, 수많은 광산터, 희귀식물 등이 그것이다. 또한 겨울에는 적설량이 많고, 여름철에는 기온이 서늘하여 모기와

열대야가 없는 쾌적한 곳으로, 최근 태백시는 석탄산업의 퇴조로 형편없이 나빠진 지역경제를 살기리 위해 고원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다.

천령

태백산 정상에서 부소봉을 거쳐 깃대배기봉으로 가는 대간 길을 신라시대에는 하늘고개라는 뜻인 천령이라 불렀다. 그 후 고직령과 연결되는 새길치(신로령)가 생기면서 천령으로 사람의 왕래가 뜸해졌다. 